

# 청계산에 백운호수... 교통까지 편리 '땅값 꿈틀'

## 신규택지 현장에 가다

### 의왕 청계

향후 의왕청계역 개통하면 역세권 숲세권·학세권으로 알짜배기 입지

“도심에서 개천을 끼고 학군에 교통까지 갖춘 지역이 또 있을까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대(의왕 청계2)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입지다. 산·개천이 가까이 환경이 쾌적하고 의왕청계역 개통, 백운밸리 개발 등의 각종 호재가 넘친다. 그린벨트로 묶어두기엔 아까운 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얘기다. 50여년 만에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에 일부 단지는 벌써부터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그냥 두기 아까운 땅'... 의왕 청계2

지난달 30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15분 가량 이동하니 한적한 분위기의 포일동 602번지 모습이 드러났다. 높은 빌딩과 건물들로 뻗뻗한 수도권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하천을 따라 놓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대 하천을 따라 놓인 산책로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대. /채신화 기자

인 산책로를 걷는 주민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산책로 맞은편에는 청계가압장, 물류창고, 폐공장 등이 잇달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의 대부분은 밭과 공터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모습이다.

의왕시는 시 전체 면적의 84.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대를 '알짜 부지'로 보고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이곳 부지는 농원이나 식당, 공터 등으로 놀리기엔 아

까울 정도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km 거리인 데다 국지도 57호선과 연계해 판교, 과천, 광명 등으로 이동이 쉽다. 향후 월곡~판교 북선전철(월곡판교선) 의왕청계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에 진입, 교통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9·21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의왕 청계2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 공급지로 지정했다. 백운호수, 청계산, 학의천 등을 연계한 물길이 흐르는 친환경 정주공간으로써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스마트지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부지와 물량은 26만5000㎡에 2560가구 수준이다.

한 지역 주민은 “산과 하천을 끼고 지하철역이 있는 아파트는 흔치 않다”며 “향후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포센푸입주, 인덕원개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만 남았다... 투자자 눈길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지로 선정된 후 의왕 청계2 일대의 집값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2단지)'은 지난

달 전용 84.89㎡가 6억5000만원(5층)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8월엔 6억1500만원(6층), 9월엔 6억2500만원(4층)에 거래됐다가 9·21 대책으로 신규택지 공급지에 포함된 이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다.

포일동 '두산위브호수마을2단지'도 80.174㎡이 지난달 5억8500만원(12층)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엔 5억5000만원(16층), 9월엔 5억6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포일숲속마을3단지'도 84.9㎡의 경우 8월엔 6억5000만~7억2500만원, 9월엔 6억9350만~7억2900만원에 거래되다가 10월엔 8억원(4·6층)까지 매매가가 올랐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왕 청계2 일대는 산, 하천 등으로 환경이 쾌적해 자녀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찾는다”며 “최근에는 (신규택지 공급지로 지정되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왕 청계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며 “의왕청계역이 개통되고 건너편 청계2지구가 역세권개발과 함께 빠르게 진행된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최소 2억원 정도는 더 오를 것”이라고 봤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소상공인聯, 'KT 화재' 관련 피해접수 200건 '홀쩍'

총 피해금액만 6억~7억원 가량 추산 피해접수 후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

서울 서대문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편이 열흘 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근지역 음식점, 옷가게, 슈퍼, PC방 등에 대해 직접 받은 피해접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상인들이 자체 추산해 제출한 피해 금액도 업소별로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00여 건의 피해 총 금액만 6억~7억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5호선 중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센터'를 설치해 놓고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서에는 업체명, 업종·업체 등과 합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 피해 유형(피해기간, 식자재, 예약, 영업피해 등), 영업손실 등 추정 피해금액, 건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했다.

특히 연합회는 피해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달 30일 천막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T가 책임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명확한 복구 일정 제시 ▲우선 카드 단

말기 임시 사용 등 보완 대책 마련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상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통신난으로 인근 지역 상인들이 입은 직접적 피해는 카드단말기 불통으로 인한 고객 이탈과 전화 주문을 받지 못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화가 불통돼 주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착신 등을 이용해 대응했지만 아마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눈에 띄는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 일부는 복구가 되질 않아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서 '프리미엄 데스크' 운영. /연합뉴스

## 롯데렌터카 제주서 럭셔리 세단 이용객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롯데렌터카가 중대형 럭셔리 세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렌터카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주오토하우스에서 운영한다.

3일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럭셔리 세단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는 전용 창구인 '프리미엄 데스크' 및 별도 배차존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프리미엄 데스크 이용 고객은 제주오토하우스 내 마련된 별도 창구에서 대기 순번을 기다릴 필요 없이 렌터카 차량의 대여 및 반납을 진행하며, 전용 존에서 차량을 배차 받는다. 서비스 적용 차종은 제네시스 G70, G80, EQ900, 기아차 K9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오토하우스의 럭셔리 세단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는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주말 및 성수기 시즌의 여행객이나 뻘뻘한 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롯데렌터카는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행 중 즐길 수 있는 식음료가 포함된 웰컴 패키지를 제공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제주도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렌터카는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제네시스 및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와 함께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카텔(렌터카+숙박) 패키지 '다이내믹 G'를 론칭했다. /양성문 기자 ysw@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되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상용직이 줄어 들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3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최충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지은 한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임금, 복지, 근로안정성 등 노동조건 차이가 확대되

는 문제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1990~2015년간 상용직·임시직 고용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비중(2015년 기준)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의 상용직 비중은 74.0%에서 73.6%, 임시직은 10.6%에 11.5%, 자영업 15.4%에서 14.9%로 증가 또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50.0%에서 57.5%, 임시직은 17.0%에서 16.5%, 자영업은 33.1%에서 26.0%로 오르거나 내렸다. 피고용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

7000달러로 OECD 29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고용 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고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3~0.5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대로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고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2~0.64%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임시직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보다는 상용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며 “임시직 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로자의 노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 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89@